

## 〈〈神仙傳〉〉靈物の 변화와 後代의 지속 양상

—〈〈列仙傳〉〉과의 차이와〈〈聊齋志異〉〉·〈〈夜雨秋燈錄〉〉의 계승

권영애\*

〈目次〉

- I. 서론
- II. 영물의 위상 저하와 대체·생략 현상
- III. 도사들의 영물 활용과 후대의 답습
- IV. 결론

### I. 서론

〈〈山海經〉〉을 원천으로 하여 劉向(기원전 77-기원전 6)의 〈〈列仙傳〉〉에서 체제를 형성한 神仙 관련 작품들은 지괴 전기양식의 대미라 할 19세기 말 宣鼎(1832?-1880?)의 〈〈夜雨秋燈錄〉〉에 이르기까지 장구한 맥락을 형성하며 중국소설사와 동아시아 소설사를 풍성하게 하였다. 소설은 삶의 이야기로 현실을 반영하고 인간의 소망과 의지를 형상화하기에, 중국 특유의 인간 본위 인문주의와 결합한 신선 관련 작품이 일찍부터 출현하고 대대로 향유되어온 것은 당연한 일이기도 하다. 더욱이 신선 관련 작품은 인간의 한계를 끊임없이 상기시키면서 그 승화를 주제로 하고 있기에 그 의의와 반추 역시 시대를 초월하여 계속될 것이다.<sup>1)</sup>

\* 건양대학교 중국언어문화학과 부교수

역대 신선 작품에서 가장 주요한 지향은 주지되어 있듯 시간 초월과 공간 초월이다. 신선의 공간 초월은 자력 비승과 타력 비승으로 나뉘는데 靈物은 타력 비승에서 乘物로 등장하는 존재이며, 인간의 신선 성취 입증, 신선의 능력과 활동, 신선이 시혜하는 인간의 공간이동에 기여한다. 작중에서 단순한 조력자 역할에서부터 주인공 역할을 담당하기도 하는데, 最古의 仙話集 〈〈列仙傳〉〉에서부터 이미 상상의 동물, 실제 동물과 식물, 일상 도구 등의 면모로 나타나고 일정한 독자 범주를 형성하고 있으며, 19세기에 이르기까지 후대의 신선 관련 작품들에서 연속 등장하고 있어 문학사의 견지에서 그 지속과 변화가 주목되는 대상이다. 나아가 靈物이 신선 관련 작품의 생성을 촉진한 근원 모티프라는 사실이 다시 부각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영물의 최초 원형은 동방 神鳥토텐의 신조이며, 이는 〈〈山海經〉〉에 등장하는 鳥人一體 존재로 이어지고, 이 존재는 무당을 거쳐 신선과 영물로 분화되면서 선회를 발생시켰다고 추정된다.<sup>2)</sup> 작중에서 양자는 별개의 존재지만 시공 초월을 지향하는 신선의 내면에

1) 吳九成과 吳秀華는 異類故事의 관점에서 신선을 신 귀 호 괴와 비슷한 존재로 취급하고 있다. “문학사의 각도(문학연원의 각도)에서 고찰한다면, 神, 仙, 鬼, 怪를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해서 현실 사회의 인류와 각각각색의 연계를 발생시킨 것은 언제 기원하였나? ... 이런 것들은 모두 중국지괴소설사 중 동류 제제의 가장 이른 기재(記載)이다(從文學史的角度(即從文學淵源的角度)考察, 把“神, 仙, 鬼, 怪”作爲故事的主人公而與現實社會的人類發生各種各樣的聯系, 起源於何時呢? ... 這些都是中國志怪小說中同類題材的最早記載). 吳九成, 〈〈聊齋志異〉〉, 광동고등교육출판사, P.283. “여우는 초창기 사람들의 의식 속에서 그 형상이 아름답지 못했으나 후기로 오면서 풍부한 다양성을 드러내게 된다. 명말청초의 작가들은 고분(狐憤)의 심정으로 창작한 仙鬼狐怪의 형상에 이상화의 색채를 대량 염색하였다. 그 이상화의 특징은 우선 그들 필하(筆下)의 仙鬼狐怪들이 대부분 예기(豫期) 없이 오는 미의 화신이라는 것이다(狐在早期人們的意識中形象不佳, 後期則呈現了豐富多樣性. 明末清初小說作者, 在孤憤心態下創作的仙鬼狐怪形象, 大多染上了理想化色彩. 其理想化特征首先表現在他們筆下的仙鬼狐怪大多是不期而至的美的化身.)”. 吳秀華, 〈〈明末清初小說戲曲中的女性形象研究〉〉, 남경 강소고적출판사, 2002, PP. 59-60.)

오구성은 지괴 장르 소재의 연원을, 오수화는 그 창작경향의 한 특질을 점검하고 있지만 이 맥락에는 독자들로 하여금 신선 관련 작품들을 신 귀 호 괴 관련 작품들과 같은 반열로 취급하게 할 관점이 함축되었다고 하겠다. 신선 관련 작품과 신귀호괴 관련 작품은 그 유래와 미질이 다른 만큼 그 사이에 위상의 차이를 개입시켜야 할 것이다.

2) 조고, 〈〈열선전〉〉 영물의 정체와 형상화 양상, 〈〈중어중문학〉〉, 제37집, 2005. 12.) P. 201 참조.

3) 신선과 선회의 기원에 삼신신앙설, 신기부설, 화강승천설, 사머니즘설이 있는데, M. Kaltenmark는 동방 민족의 신조토텐이 〈〈山海經〉〉의 한 연원이 되었으며 〈〈山海經〉〉의 鳥人一體 존재는 그 후속이면서 신선의 원형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M. Kaltenmark, 〈列仙傳與列仙〉, 〈〈中國學誌〉〉, 臺北, 1969, No. 5. 정제서, 〈〈산해경〉〉 신화와 신선설화, 〈〈中語中文〉〉)

영물이 잠재되어 있고 비월하는 영물에는 신선의 이미지가 잠재되어 있으며, 주종 관계이면서도 보완하는 관계라고 할 수 있다.

영물을 전제하고 본고가 살펴볼 葛洪(283-363)의 <<神仙傳>>은 잘 알려진 대로 <<列仙傳>>을 이어 후대 신선 관련 작품의 母本이 된 작품집인데, 그 한 작품에 다음과 같은 영물 관련 기본양상이 일체히 나타나 있어 뜻 깊다.

신선의 능력이란 무궁하여 i)몸에 붉고 빛나는 것이 생겨나며, 또 등그런 원광의 날개가 갖추어지기도 합니다. ii)몸을 솟구치면 하늘을 넘지할 수 있고 었드려 들어가면 無間의 세상을 드나들 수 있습니다. iii)비룡을 제어하여 八咫까지 두루 다닐 수 있고, 흰 고니를 타고 九陔까지 빙빙 돌아 즉시 한 바퀴

學》 제12집, 1986, P. 17에서 재인용). 이 견해에 孫作雲, 李豐楙, Keneneth J. Dewoskin 등이 동의하였고 정제서도 “이러한 견해들은 후대의 신선설화에서 곧 확인할 수 있는데, 가령 선인의 특징을 묘사하는 가운데에 <한낮에 하늘로 날아오른다(白日飛昇)>라든가 <몸에 털이 나고 어깨(팔)가 날개로 변해서 구름 속을 다닌다(體生毛, 臂變爲翼, 行於雲)>는 등의 표현에는 비상의 개념이 강조되어 있고, 선인의 출몰에 흔히 봉황이나 학과 같은 신조가 수반된다는 식의 서술은 <<산해경>> 신화와 신선설화의 계통적 관련성을 시사하는 움직임일 수 없는 증거이다.”라고 부연하며 추인한다.(정제서, <<불사의 신화와 사상>>, 민음사 2005, PP. 96-97.) 이 견해들에서 신조와 조인일체 존재가 영물의 기원이기도 하다는 명시 언급이 없기는 하지만 문맥에 내포되어 있다고 하겠다. 영물도 신조에서 유래한다는 본고의 견해는 그 부각이며 강조에 불과하지만, 영물 이해나 연구에서 줄고들 이외에서는 前面化되지 않고 있다. 참고로, <<산해경>>에서 보이는 鳥人一體 존재를 하나만 예거해본다. “서북해의 밖, 흑수의 북쪽에 날개돋힌 사람이 있는데 이름을 묘민이라고 한다. 전육이 환두를 낳고 환두가 묘민을 낳았는데, 묘민은 성이 이씨이고 육식을 한다. 장산이라는 산이 있다.(西北海外, 黑水之北, 有人有翼, 名曰苗民. 鸞頭生雛頭, 雛頭生苗民, 苗民鸞姓, 食肉. 有山名曰章山).”(大荒北經). 같은 책 P.317. 이러한 조인일체 존재에 이어 이 존재와 신선 사이에 개재된 무당과 관련하여 <<산해경>>의 다음 기록도 주목된다. “무함국이 여축의 북쪽에 있다. (무당들이) 오른 손에는 푸른 뱀을, 왼손에는 붉은 뱀을 쥐고 등보산에 있는데 (이 산은) 여러 무당들이 (하늘로) 오르내리는 곳이다.(巫咸國在女丑北, 右手操青蛇, 左手操赤蛇. 在登葆山, 群巫所從上下也).”(海外西經). 같은 책 P. 230. 이상 신조에 연원을 둔 조인일체 존재와 무당은 같은 <<산해경>>의 용, 용어, 순조, 회오리바람 폭우, 속호, 추오, 승황 길량 등의 원형들로 추정된다.(출고, <<열선전>> 영물의 내원과 그 지속과 변화 양상) (<<중어중문학>> 제39집, 2006, 12, PP. 397-434.) 그리고 신선을 주인공으로 하는 신화들이 탄생하면서 신선과 영물로 분화되며 영물은 <<열선전>>에서 용, 봉황, 잉어, 거마, 사슴, 학, 개, 오이, 풍우, 연기, 바람, 나무양 등으로 그 정체가 정립되고 있다.(『<<열선전>> 영물의 정체와 형상화 양상』(<<중어중문학>> 제37집 2005, 12, PP. 181-213.) 후대의 모든 신선 작품의 영물들은 이들의 다양한 후예들이라고 할 것이다.

를 둘 수도 있습니다.” 4)

인간에서 출발하여 인간 이상의 존재가 된 신선의 공간 초월 능력이 열거되어 있다. i)에서 신선은 신조가 투영된 조인일체 존재와 유사하며, ii)에서는 새와 유사하게 자력비승하고 있고, iii)에서는 영물을 활용하여 타력비승하고 있다. 원형과 그 분화가 한 맥락에서 제시되어 있어 뜻 깊으며, 신선의 이러한 능력에서 인간의 신선 소망과 그 한 궁극이 환기된다.5)

갈홍은 <<신선전>>序文에서 다음과 같이 영물을 직접 언급하기도 하는데 영물을 신선 성취의 등가물로 간주하고 있기도 하다.

자광은 현도에 오르면서 규룡의 고삐를 잡았고 주진(왕자교)은 구씨산에서 흰 학을 타고 다녔으며, 현원은 정호에서 용을 타고 올랐으며, 갈유는 수산에서 목양을 길들였다.6)

주지되어 있듯 <<신선전>>은 東晉의 갈홍(283-363년)이 신선이론서<<抱朴子·內篇>>을 완성한 후 그 연장선상에서 편찬한 신선 관련 작품집이다. 갈홍의 편찬 동기는 첫째, 이성 중심 현실 합리주의를 뛰어넘어 實在를 추구하는 ‘식견이 높은 선비’들에게 신선들의 이야기를 전수하여 仙道와 神仙을 신뢰하게 하는 것이고, 둘째는 <<열선전>>이 ‘이주 심히 간요하며 좋은 이야기들은 거론하지 않고 있다’

4) “神仙無窮, 身生朱陽之羽, 體備圖光之翼. 鍊明液天, 伏入無間. 控飛龍而八遐已遍, 駕白鴻而九陔立周.”(李少君), 임동석, <<신선전>>(고즈원 2006), P. 216. (역문), P. 223. (원문). 임동석은 四庫全書 <<神仙傳>>를 대본으로 하고 <<雲及七籤>>과 <<太平廣記>>에 실려 있는 해당 텍스트들을 대조하며 국역하였으며, <<搜神記>>, <<열선전>>, <<博物志>>, <<藝文類聚>>, <<仙佛奇蹤>> 등 기타 유서의 기록도 참조하고 있어, 원문과 역문 모두 신뢰도가 뛰어나다. 노작을 존중하며 글이 따로 국역하지 않고 이하 <<신선전>>의 역문과 원문은 모두 ‘임동석본’을 따른다.

5) 신선의 비승에는 공간초월 뿐만 아니라 불사의 신앙도 내포되었다고 하는 주장도 있다. “비승의 이미지는 아주 일찍부터 출현하였는데, “혼백을 싣고 구름 위로 오른다(載營魄而登霞)”라는 영혼불사의 신앙과 “우화승천(羽化昇天)”이라는 변화된 신화 관념에서 기원하였다고 한다. (飛升意象出現很早, 它來源于古代“載營魄而登霞”的靈魂不死信仰和“羽化升天”的“變化神話”觀念.). 趙益, <<六朝南方神仙道教與文學>>,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6, P. 216.

6) “子光贊曰雷於玄塗, 周晉跨素禽於緱氏, 軒轅控飛龍於鼎湖, 葛由策木羊於絳山”, 임동석, 앞의 책, P. 17, P. 18.

는 불만이었다.<sup>7)</sup> 갈홍은 문제제기대로 <<신선전>>에서 <<열선전>>보다 11편 많  
은 84편을 수록하고 있으며<sup>8)</sup>, 작품들에서 지문과 묘사와 대사가 늘어나고, 성취과정  
과 활약 사건 등이 확장되면서 후대 신선 소설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다.<sup>9)</sup> 이렇듯  
<<신선전>>의 진전이 인정되지만, <<열선전>> 없이 성립되기 어려웠다는 것도  
물론이다.

역대 신선 관련 작품에서 출몰을 거듭하는 영물들의 정체와 형상화 양상을 지속과  
변화의 관점에서 고찰하려는 시도의 일환인 본고는 <<열선전>>의 영물과 대비하여  
<<신선전>>의 영물들에 어떠한 변화들이 있는 지 검토하고, 18세기 <<聊齋志  
異>>와 19세기 <<夜雨秋燈錄>>의 영물들을 살펴<<신선전>>에서 시도된 변화가  
어떻게 계승되고 있는 지 그 구체를 탐색하려 한다.

7) '내가 다시 고대 선인들의 일을 모아 편집한 이 책은 《仙經服食方》과 百家들의 책에서 이미  
보이며 그 외에 선사들이 한 말들, 기유(著術)들이 논한 것으로 모두 10권으로 하여 진리를  
알고 식견이 높은 선비들에게 전해 주기 위함이다. 그중에 속세에 묶여 있는 무리들이나 미세  
한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자라면 역시 억지로 이를 보라고 하지 않겠다. 유향이 찬술한 것은  
아주 심히 간요하며 좋은 이야기들은 거론하지 않고 있다.(予今夏抄集古之仙者, 見於仙經食  
方及百家之書, 先師所說, 著術所論, 以爲十卷, 以傳知眞識遠之士, 其系俗之徒, 思不輕徵者, 亦不強  
以示之, 卽知劉向所述, 殊甚簡略, 美事不舉.)', 《序》, 임동석, 앞의 책, PP. 17-18.  
8) 중복되는 작품은 《容成公》과 《彭祖》인데, 《藝文類聚》에서 逸文으로 여겨 침묵한 《劉安》을  
고려한다면 3편이라 할 수 있다.  
9) 우찌야마는 구성 확대, 새로운 일화 첨가, 지식인 수도자 증대, 수행담, 秘蹟과 이론, 도술 증량  
을 주목하였고(內山貞地, 《仙學の展開》, 《大東文化大紀要》, 日本 1974, No. 13, PP. 110-111. (정  
제서, 앞의 책 PP. 111-112참조) 진인초는 중국소설사의 관점에서 <<신선전>>의 《白石生》,  
《左慈》의 인물 구성 주제를 검토하며 <<신선전>>이志怪양식의 속성을 담고 있는 중국소설  
형성기의 주요 작품집이며 唐代 傳奇의 출현에 주요한 영향을 끼쳤다고 보았다.(《神仙傳研  
究》, 《연세논총》) 1985, P. 65.) 한경아는 《老子》, 《彭祖》, 《劉根》등을 검토하며 설화성을 경  
신한 서사요소의 발전 양상을 검증하였으며(《神仙傳》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논문,  
1998, pp. 67-89), 그 과정에서, 李龜國의, 작품의 길이, 주인공 행적 부연, 문장의 분석성 주목  
(《唐前志怪小説史》, 南開大學校 出版部, 1984, P. 318)과 候忠義의 상황 묘사 내용 증가 구조  
확대 주목(《中國歷代小説釋典》, 雲南人民出版社, 1986, PP. 40-41.)을 소개하고 있다.(P. 67, P.  
82.) 그런데 모두 영물 관련 변화 양상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

## II. 영물의 위상 저하와 대체·생략 현상

<<신선전>> 84편에서 영물을 다룬 작품은 <衛叔卿>을 위시, 모두 19편이었다.  
그 중 본고의 목적에 부합하는 작품은 <玉子>, <尹軌>, <薊子訓>, <李意期>, <封  
君達>, <介象> 6편이었다.<sup>10)</sup> 이 작품들을 조명하기에 앞서 먼저 <<신선전>>에  
등장하는 영물들이 어떤 각도와 조건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지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미리 말하면 <<열선전>>에서와는 달리 신선들 사이에 세 위계가 설정되는 가운데  
영물은 둘째 층위의 신선, 즉 지선에 배치되어 있었다. 다음은 <<신선전>>, 《劉根》  
일부이다. 유근이 신인에게 度世하는 방법을 묻자 신인은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i) 너는 선골은 있다. 그 때문에 나를 만날 수 있었던 것이다. ... 반드시 장생  
하고자 한다면 먼저 12년 동안 병부터 고쳐야 한다. 그래야 선약 중에 上藥을  
복용할 수 있다. 무릇 仙道에는 승천하고 구름을 밟고 다닐 수 있는 것도 있  
고, 오약을 마음대로 遊行하는 것도 있으며, 또는 곡류를 먹어도 죽지 않는  
것이 있으며, 또 시해하여 신선이 되는 것도 있는데 요결은 모두 약을 먹는  
것이다. ii) 약은 다시 상약과 하약이 있다. 그 때문에 신선도 여러 가지 품등  
이 있는 것이다. 방중술을 모르면서 行氣導引하되 약을 복용하지 않으면 역시  
신선이 될 수 없다. 약 중에 상급은 오직 九轉還丹과 太乙金液이 있을 뿐이다.  
이를 복용하면 모두가 즉시 하늘로 오르게 되는데 여러 날, 여러 달의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 다음이 雲母와 雄黃 따위인데 이는 능히 사람으로 하  
여금 구름을 타고 용을 타게 하여 역시 귀신을 부리고, 변화하고 장생하게 하  
는 것이다. iii) 草木의 약은 그저 능히 병을 치료하고 허한 것을 보충해주는  
정도이며 나이가 들지 않도록 멈추게 하고 백발을 검게 되돌리며 곡류를 끊  
고 기를 보익하는 정도일 뿐 사람을 죽지 않게 하지는 못한다. 그저 나이 수  
백 년을 살게 하며 아래로 겨우 그 타고난 품격을 온전하게 해주는 정도일 뿐  
이다. 오래도록 이를 믿고 행할 것은 못된다.<sup>11)</sup>

10) 변화보다 지속이 위주인 영물들의 정체와 각종 관련 정황 검토는 후고를 기약하려 한다.  
11) "神人曰: "...汝有仙骨, 故得見我。汝今髓不滿, 血不煖, 氣少腦減, 筋急肉沮, 故服藥行氣不得其

세속 초탈의 자질이 이미 천부로 정해져 있는 가운데 i)에서 신선들의 종류와 능력을 단순히 열거되고 있는 것 같았으나, 복약이 요결로 부각되고 있고, ii)에서 복약은 상약, 하약 두 등급으로 차별되며, 이를 기준으로 신선의 품등까지 규정되고 있다. 즉 어떤 복약을 하느냐에 따라 신선의 등급도 결정된다. 더불어 주목해야 하는 것은 신선이 되면 비승할 수 있지만 등급에 따라 비승 방식도 다르다고 한 부분이다. ‘九轉還丹’과 ‘太乙金液’같은 상약을 복용하면 天仙이 되어 자력비승을 할 수 있고, ‘雲母’와 ‘雄黃’같은 하약을 복용하면 地仙이 되어 구름이나 용을 타는 타력비승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시해선에 대해서는 영물이 간과되고 있다.<sup>12)</sup> 그리고 草木으로 만든 약을 복용하면 병을 치료하고 원기를 보충할 수 있으며 수백 년 장수할 수 있지만 불사를 성취할 수 없다고 하였는데, 이는 도사에 관련된 부분일 것이다.

이상 주장의 주체는 작중 신인이 아니라 갈홍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sup>13)</sup> 이러한 주장은 <劉根>에서만 나타나는 국한된 현상이 아니라 거의 체계화되어 있다. 다음에서 볼 수 있듯 하약인 운모를 복용하면 천선이 아닌 지선이 된다.

力。必欲長生，且先治病十二年，乃可服仙之上藥耳。夫仙道有昇天躡云者，有遊行五嶽者，有食穀不死者，有尸解而仙者，要在於服藥。服藥有上下，故仙有數品也。不知房中之事，行氣導引而不得神藥。亦不能仙也。藥之上者，唯有九轉還丹及太乙金液，服之，皆立便登天，不積日月也。其次云母雄黃之屬，能使人乘雲駕龍，亦可使役鬼神，變化長生者。草木之藥，唯能治病補虛，駐年返白，斷穀益氣，不能使人不死也，高可數百年，下盡全其所稟而已，不足久賴矣。”임동석, 앞의 책, PP. 332-333, PP. 335-336.

12) 이상 언급은 <<抱朴子 內篇>>《論仙》에 서술되어 있는 신선삼품설을 기초로 하고 있다. “按仙經云，上士舉形昇虛，謂之天仙；中士游於名山，謂之地仙；下士先死後脫，謂之尸解仙(《仙經》)에 근거하여 상사는 몸을 들어 하늘로 올라가는데 천선이라 하고, 중사는 명산에 노니는데 지선이라고 하며, 하사는 죽은 뒤에 허물을 벗는데 이를 시해선이라고 한다.”고 하였다. 王明,《抱朴子內篇校釋》(北京, 中華書局, 2007), P. 20.

13) 이 작품이 갈홍의 창작일 경우 신인은 갈홍의 단순한 피소나일 가능성도 있다. 갈홍은 《陰長生》에서 직접 전지시점 서술자로 등장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기도 한다. “나 포박자는 이렇게 말한다. ‘네가 언서에 있는 말을 통해 들은 바로는 ‘한밤중에 발길을 다녀보지 아니하면 발길을 다니는 자를 이해하지 못 한다’ 라 하였다. 그러니 선도를 얻지 못한 자가 어찌 천하 산림에 도를 배워 선도를 터득한 자를 알겠는가? (抱朴子曰：《洪開諺書有之曰：子不夜行。不知道上有夜行人。故不得仙。亦安知天下山林間有學道得仙者耶?》, 같은 책 P. 169, P. 173. 이 사례는 <<신선전>> 작품들의 작중 지문과 대사의 주체가 갈홍 자신이거나, 갈홍이 만든 허구적 인물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한다. <<신선전>>의 작품들은 <<仙經服食方>>과 百家들의 책과 관련이 있었지만, 전편에 걸쳐 갈홍이 자신의 의도에 따라 수정, 삽입 등 윤색을 하였으며, 어떤 작품은 전체가 창작이라고 추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궁승은 크게 문제가 있어 道書 2백여 권을 지었으며, 운모를 복용하여 지선의 도를 터득하였다. 뒤에 저서산으로 들어가 신선이 되어 사라졌다.<sup>14)</sup> 운모와 지선은 분명하게 상관관계로 언급되어 있다. 그러나 ‘九轉還丹’과 ‘太乙金液’ 같은 단약을 복용하면 천선이 된다.

육자가 그(태양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너는 … 공업을 닦지 않고 좋은 약도 조제할 줄 모르니 비록 천 살을 산다 해도 끝내 죽음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하물며 이제 겨우 몇 백 살 살고 있음에라!” … 태양자는 단약을 복용한 후 신선이 되었으며…<sup>15)</sup>

또 단약도 다 먹으면 천선이 되고 그 반만 먹으면 지선이 된다.

이렇게 고생과 노력 끝에 이에 <<太清神丹經>> 3권을 받아 이를 가지고 돌아와 산에 들어가 약을 조제하여 이를 복용하였다. 그는 승천하기를 원하지 않았으며 단지 약 반 제만을 복용하여 지선이 되었다.<sup>16)</sup>

이상에서 <<신선전>>에서는 <<열선전>>에서와는 달리, 천선과 지선이 등차 구분되고 영물이 지선에 소속되면서 그 위상이 저하되고 있으며, 이는 단약의 강조에 연계되어 있는 변화 현상임을 알 수 있다. <<열선전>>에서도 단약의 효험을 그린 작품들이 있었으나 신선이 되는 한 방안이었을 뿐이며 다른 방법들보다 우월하다고 하지 않았다.<sup>17)</sup> 단약 강조는 멀리 <<산해경>>의 광물질 중시에 그 연원이 있고<sup>18)</sup>,

14) “宮嵩者，大有文才，著道書二百餘卷，服雲母，得地仙之道，後入芋嶺山申仙去。”(宮嵩), 임동석, 앞의 책, P. 269.

15) “玉子謂之曰：「汝…功業不修，大藥不合，雖得千歲，猶未足以免死…」 ……服丹得仙…»”(太陽子), 같은 책, P. 154.

16) “勤苦備嘗，乃受《太清神丹經》三卷，歸入山合藥，服之，不樂昇天，但服半劑，爲地仙矣。”(馬鳴生), 같은 책, P. 166, P. 167. 이러한 마명생은 <<신선전>>신선 계보에서 주요 신선이다. (음장생)의 음장생은 그의 제자이다.

17) 《桂父》, 《任光》, 《崔文子》, 《負局先生》, 《玄俗》등에서는 성선과 관련 없는 세속 민간 병 치료 환약이 제시되어 있고, 《赤奔》에서는 단자와 초석이 다시 끓여지는 약제로 소개되었으며, 《主住》와 《劉宏》에서는 단약의 비법한 효능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런데 《赤松子》에서도 성선에 수정 복용을 연관시키고 있지만 제조과정을 거친 단약이 아니다. 참고로 《師門》에서 사문

後漢 魏伯陽이 煉丹術을 정립한 이래 魏晉 시대의 관방 도교가 연단을 중시한 것과 궤적을 같이 하는데, 갈홍의 활동<sup>19)</sup>도 그 추구에 중심이 있었다.

이와 아울러 참조해보아야 할 것은 영물이 다른 것으로 대체되거나 생략되는 현상이다. 이런 현상들은 영물의 위상 저하의 여파로 추정된다.

i) 그는 먼 길을 급히 다녀와야 할 경우가 있을 때면 그에게 符籙 하나를 주었고, 아울러 丹書를 그 사람 양쪽 발에 달아 주었다. 그러면 그는 천 리를 하루 가 다 가기 전에 다녀올 수 있었다.<sup>20)</sup>

ii) 옛날 한 무제가 원봉 2년 승산에 올라 대우석실에 오른 다음 그곳에 도공을

은 복숭아와 오얏의 꽃을, 《務光》에서 무광은 창포와 부추 뿌리를 복용하여 신선이 되고, 《馬師皇》에서 마사황은 의술과 시혜로, 《黃帝》에서 황제는 사리 통달로, 《呂尚》에서 여상은 예지력과 공언으로, 《衛封子》의 영봉자와 《曠父》의 소부는 작화법으로, 《彭祖》에서 팽조는 궤과 영지 복용과 도인 행기술로 신선이 되는데, 전편에 걸쳐 성전에서 단약을 우선하는 언급이 없다.

한편 “신선삼품설의 반영 비율에 있어도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열선전>>이 주로 천선형을 최고의 지위에 올려놓고 …(한경아, 앞의 논문P. 88.)라는 언급이 있는데, 이는 갈홍의 신선삼품설을 전제로 하고 <<열선전>>을 고찰한 결과이다. 새삼스럽지만 신선삼품설은 <<열선전>>이후 東晉 시대에 정립된 이론의 하나이다. <<열선전>>의 신선들에 굳이 갈홍의 신선삼품설을 적용해본다면, 적송자, 마사황, 소부, 팽조 등은 천선, 무광 등은 지선, 영봉자와 황제와 여상 등은 시혜선에 해당한다. <<열선전>>의 신선들 사이에 성선 방식에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텍스트에 그 차등을 규정하는 언급이 없는 이상 단지 방식의 차이로 보아야 할 것이다.

18) 정제서, 앞의 PP. 73-79 참조.

19) 그의 평생은 단약 제조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또 신선 도양 법술을 좋아하였다. 종조부 갈현은 오나라 때 도를 배워 신선이 되었고 … 鍊丹術을 제자 정은에게 전수하였다. 갈홍은 정은의 문하에서 그 법술을 배웠다. … 나이가 들자 연단으로 장수를 누리하고자 하였다. 교차에서 丹砂가 난다는 말을 듣고 구루령이 되고자 하였는데 황제는 갈홍의 자품이 높으며 허락하지 않았다. 갈홍이 영화를 위해서가 아니라 단약 때문입니다. 라고 아뢰자 황제가 따랐다. 갈홍은 드디어 아들 조가를 데리고 떠났다. 광주에 이르자 자사 등악이 붙잡았으나 듣지 않고 가버렸다. 갈홍은 곧 羅浮山에서 머물면서 단약 제조에 몰두하였다. …(《金匱藥方》)100편 … 을 가려 뽑았다.(又好神仙導養之法, 從祖女, 吳時學道得仙, 號曰葛仙公, 以其鍊丹秘術授弟子鄒隱, 洪就隱學, 悉得其法焉. … 以年老欲鍊丹以祈遐壽, 聞交趾出丹, 求爲句漏令, 帝以洪高, 不許, 洪曰, 非欲爲榮, 以有丹耳. 帝從之, 洪遂將子姪俱行, 至廣州, 刺史鄧嶽留不聽去, 洪乃止羅浮山煉丹. … 又抄 … 金匱藥方一百卷.)”, 《(晉書)》권72, 臺北 鼎文書局, 列傳第四十二, 葛洪, PP. 1911-1913.

20) “人有欲遊行速至者, 意期以符與之, 并以丹書其人兩足, 則千里皆不盡日而還.” 《李意期》, 임동석, 앞의 책, P. 385.P. 387.

깃고 동봉군 동방삭 등으로 하여금 계계하고 몸을 씻은 다음 신을 사색하도록 하였다. 밤이 되자 홀연히 신선이 나타났는데 키는 두 길 이 넘었고, 귀는 아래로 늘어져 어깨에 닿았다.<sup>21)</sup>

i)에서 보듯 符籙과 丹書가 영물을 대신하고 있다. 먼저 단서가 주목된다. 이 역시 단서를 신성시하던 동진 시대 관방 도교의 반영이며, 앞에서 살펴본 단약 강조의 일환에 해당한다. 단약은 영물의 위상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대체까지 하고 있는 것이다. 부적의 등장도 당시 도교의 治病 辟邪의 경향이 반영된 것이다. 부적은 정화수와 주술과 더불어 민간 도교의 상징이다.<sup>22)</sup> 관방 도교 계통의 <<신선전>>에서 부적이 이렇게 영물을 대체하고 있어 의아롭지만 두 계통이 확연하게 구별되는 배타의 관계였다고만 보기 어렵다. 일정한 상호 삼투가 있었을 것이며 이 사례가 그 한 증명이 된다고 하겠다.

ii)는 영물을 생략하는 사례이다. <<열선전>>에서는 신선이 세속의 인간에게 임제 할 때는, 신선의 정체를 입증하면서 그 권위를 시사하는 영물이 동반되는데<sup>23)</sup> 여기서는 생략되고 있다. 그 대신 부각된 것은 ‘키는 두 길 이 넘었고, 귀는 아래로 늘어져 어깨에 닿았다’는 신선의 외양 묘사이다.<sup>24)</sup> <<열선전>>의 신선들에서는 보기 어려운 묘사인데, 이런 묘사 자체가 신선의 정체성을 시사하기에, 굳이 영물을 등장시킬 필요가 없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어서 <<신선전>>영물의 위상 변화 및 대체 생략 현상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

21) “昔漢武帝元封二年, 上嵩山, 登大愚石室, 起道宮, 使董奉君 東方朔等, 齋戒思神, 至夜, 忽見仙人長二丈餘, 耳下垂至肩.” 《王興》, 같은 책, P. 385.P. 390.

22) 徐繼明과 冷天吉은, 동진 시대의 도교를 갈홍의 불로장생 추구와 민간의 치병 기복 위주 추구로 이분하며, “갈홍은 상충 시대부 도교에 長生成仙의 근본 중지를 확립하였다. 그는 초기 민간도교가 병을 치료하고 계앙을 없애고 화를 물리치는 것을 추구하는 데에 반대하여, 煉丹長生과 修道成仙을 도사가 추구해야할 근본 목표로 삼았다.”고 하였다. 徐繼明, 冷天吉 저, 《(人仙之)》- 《抱朴子》與中國文化, 開封 河南大學出版社, 1998, P. 16.

23) 예를 들면 《秀高의 붉은 잉어》, 《騎龍鳴의 용》, 《子英의 잉어》.

24) 다음과 같은 사례도 있다. “노오가 … 봉곡산에 이르러 이 약사라는 신선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 사람은 깊은 눈에 검은 콧잔들이었으며 어깨는 솟아올라 새매와 같았고, 기다란 목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몸의 상체는 풍성하고 아래는 아주 작았다. 즐거워하는 모습으로 바람을 맞이하여 출렁출렁 춤을 추고 있었다.(虛歎…至于蒙谷之山, 而見若士焉, 其爲人也, 深目而玄準, 鵝肩而脩頸, 豐上而殺下, 欣欣然方迎風軒輊而舞《若士》, 임동석, 앞의 책, P. 26, P. 27

은 작품들에서 자주 나타나는 강렬한 세속지향 경향이다.

신단을 이미 성공하였다. 그러나 이를 먹으면 하늘로 올라가 진인이 되고 만다. 그렇게 되면 이 세상에 아무런 공덕도 남기지 못하게 된다. 모름지기 국가를 위하여 재앙을 제거하고 이익을 누리게 해주어 백성과 서민을 구제해야 한다. 그런 다음에 단약을 복용하면 가벼운 마음으로 신선이 될 수 있다. 신하로서 세 가지 경우를 섬겨놓고 나면 거의 부끄러움이 없을 것이다.<sup>25)</sup>

금단 제조에 성공하였으나 복용하지 않는 이유는 지상의 세속에 간여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즉 천선을 지향하기는 하지만 우선 이 세상에서 머무르며 이 세상을 위한 사업을 하면서 공덕을 쌓는 일이 우선시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지향은 자연 영물의 출현과 역할을 제한할 수밖에 없게 한다. <<열선전>>의 신선도 세속지향이 없지 않았으나 세속초탈과 승화에 더 비중이 있었다. <<신선전>>의 경우 확실히 그것들보다는 세속지향과 향유가 훨씬 강렬하다. 이에 다음에서 보듯 인간의 욕망을 긍정하는 태도가 내포되어 있다.

그러자 팽조가 이렇게 말했다. “뭍을 들어 하늘로 올라가 선계에서 선관을 보좌하고 싶어 한다면 반드시金丹을 복용해야 한다. … 그러나 이러한 일들은 비록 죽지 않는 목숨을 누린다고는 하나 모두가 사람의 인지상정을 버리고 영화와 쾌락을 떠난 것으로, 이는 참새가 조개로 변하고 꿩이 변하여 조개가 되는 것과 같아 그 본래의 진실함을 잃은 것이다. … 지금의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도 않는다. 사람의 도리란 웅당 맛있는 음식을 먹고, 가볍고 화려한 옷을 입으며, 남녀 음양을 통하고, 높은 관직에 오르며, 귀와 눈이 총명하기를 바라며, 골절이 강하기를 위하여 안색이 화택하고 늙어도 쇠하지 않으며 목숨이 늘어나 세상을 길이 보며 이 인간 세상에서 장수하고 싶어 한다. … 이렇게 하는 것을 귀한 것이라 한다.”<sup>26)</sup>

25) “神丹已成，若服之，當冲天爲真人，然未有大功於世，須爲國家除害興利，以濟民庶，然後服丹即輕舉，臣事三境，庶無愧焉。”，《張道陵》，임동석, 앞의 책, P. 189, P. 191.

26) 彭祖曰：“欲學形登天，上補仙官者，當用金丹。… 然有此等，雖有不亡之壽，皆去人情，離榮樂，有若雀之化蛤，雉之爲蜃，失其本真，… 今之愚心未之願也。人道當食甘旨，服繡麗，通錦陽，處官秩，耳目聰明，骨節強，顏色和澤，老而不衰，延年久視，長在世間，… 乃可貴耳。”，《瓊笈》，같은 책, PP. 33-36, PP. 40-41. 이러한 지향은 사승관계를 통해 계승되고 있기도 하다. 한 사례만 참조한다. “백석생은 중황장인의 제자이다. 그는 승선의 도를 닦으려 들지 않았지만 단지 죽지 않는 것으로 만

여전히 금단 복용과 천선 성취가 부각되고 있지만 팽조는 이를 지어하며, 또 그런 욕망을 우매하다고 하면서도 일단 세속에서 영화와 쾌락을 누리면서 ‘인간 세상에서 장수’하는 것을 수용하고 있다. <<열선전>>에서와는 달리 인간의 욕망을 극복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긍정하면서 그 충족을 배려하고 있는 것이다. 인간의 인지상정을 고려하며 민중의 요구에 부합하려하는 당대 도교의 경향과 부합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영물의 위상 저하 및 대체 현상은, 단약 강조와 세속 욕망의 수용 경향과 연계되어 있으며, <<신선전>>영물의 일반 특징이다. <<열선전>>에서는 볼 수 없던 현상들이며, <<신선전>>영물 형상화 고찰에서 기초 조건이 된다.

### Ⅲ. 도사들의 영물 활용과 후대의 답습

하지만 영물은 인간의 공간초월 회귀와 권능의 육화이자 그 상관물이고, 작품의 사건 진전과 환상 구축에서 필수 캐릭터이기에 <<신선전>>에서 여전히 출몰을 거듭한다. 앞에서 검토한 조건을 전제로 하지만 신선들의 영물 활용은 물론이고, 이전과 다른 차원에서 그려지고 있다. 바로 도사의 영역이다. 의외에도 도사가 신선처럼 영물을 활용하는 사례들이 출현하며, 필요에 따라 창조하기까지 한다. <<열선전>>의 도사들은 지상에서 불로장수하며 비범한 행위<sup>27)</sup>를 하지만, 신선처럼 영물을 활용하거나 창조하는 사례는 없었다. 영물은 신선의 전유물이었으나, <<신선전>>시대에

죽힐 뿐이었다. … 팽조가 그에게 물었다. … 이렇게 대답하였다. “천상이라 해도 이 세상의 약보다 나은 것이 있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단지 천상이 하는 일이란 능히 늙거나 죽지 않게 할 뿐이지요. 천상에는 모시고 받들어야 할 지존의 높은 신선이 너무 많습시다. 이 인간 세상보다 더 노고롭지요. (白石生者，中黃丈人弟子也，… 不肯修拜仙之道，但取於不死而耳，… 彭祖問之，… 答曰：「天上無復能樂於此間耶？但英能使老死耳，天上多有至尊相奉事，更苦人間耳。」)〈白石生〉，같은 책, PP. 49-51.

27) 容成公은 보도술, 方回는 변신술과 봉인술, 老子는 정기 보양술, 關令尹은 예언술, 仇生은 양신술, 范蠡는 전략전술과 치부술, 幼伯子는 양신술, 籙父는 환약조제술, 祝離翁은 양계술, 朱仲은 장사술, 崔文子는 역병약제술 등.

이러려 영물은 이제 더 이상 신선의 전유물이 아니게 된 것이다.

<<열선전>>에서는 없던 이러한 변화 양상은 II장에서 검토된 문제들을 기초로 하지만 영물의 정체성 변화 현상이기에 그 문제들과 구별되어야 하며 그 비중도 같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신선전>>의 이러한 변화는 단발로 그치지 않고 후대 작품에서 지속되거나 변용되고 있어 주목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세속지향 경향을 점검하며 살펴보았듯 <<신선전>>에서 성선은 <<열선전>>에서와 달리 간명한 직선형 세속 초탈이 아니다. 초탈할 능력을 지녔어도 유예한다. 성선은 세속의 온갖 사업을 영위하며 욕망을 가능한 한 최대로 충족한 후에 마지막으로 시도하는 자기완성이다. 초탈이 궁극으로 설정되어 있지만 유예뿐만 아니라 선택의 성격마저 가미되어 있다.

이러한 구도에서 地上에서 770세 이상 불로장생하는 팽조와 같은 도사가 다수 등장하며, 그들의 수행담과 활약담이 서사의 주종을 이루는데 28) 이 과정에서 영물들이 출현한다.

도사들의 영물 활용 사례들을 검토하기에 앞서, 도사가 신선과 구별되는 존재라는 사실을 작품 자체에서 확인해줄 필요가 있을 것이다.

“지금 대완산 속에 靑精선생이란 분이 계시는데 전하는 말로 그는 나이가 이미 천 살이나 되었지만 얼굴이 동자 같으며 하루 3백 리를 걸을 수 있다고 한다. 능히 일 년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을 수 있으며 하루에 아홉 번이나 먹을 수도 있다고 한다. 진실로 찾아가 물어볼 만 한 자는 바로 이 사람이다.” 채너가 물었다. “감히 여쭙건대 청정선생을 무슨 선인이라 부릅니까?” 팽조가 설명하였다. “그는 도를 얻은 자일뿐이지 仙人은 아니다.” 29)

28) 吳光正은 역대 신선 작품의 이야기를 下凡歷劫, 悟道成仙, 成仙考驗, 濟世降妖 型으로 분류하였는데(吳光正, 《中國古代小說的原型與母題》, 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02, PP.103-219), 成仙考驗型을 고찰하며 그 모델로 <<신선전>>의 〈魏伯陽〉, 〈李阿〉, 〈劉安〉, 〈陳安世〉, 〈陰長生〉, 〈李八百〉, 〈蘄子訓〉, 〈張道陵〉을 예거하며, 濟世降妖型으로는 〈蓋公〉(費長房), 〈樂巴〉, 〈葛玄〉을 예거하고 있다.(앞의 책, PP. 171-174.)

29) “今大宛山中, 有靑精先生者, 傳言千歲, 色如童子, 行步一日三百里, 能終歲不食, 亦能一日九餐, 眞可問也.” 采女曰: “眞聞靑精先生所謂何仙人也?” 彭祖曰: “得度者耳, 非仙人也. …”, 임동석, 같은 책, 《팽조》 P. 34 .PP. 40-41.

인용 말미에서 보듯, 천 살이나 불로장생하며 일 년 동안 먹지 않을 수도 있는 청정선생은 신선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도사이다. 이러한 존재는 이미 <<열선전>>에서도 다수 등장하며 30) 서술자가 그들 일부에게 ‘道士’라고 호칭하기도 한다. 31) 작중에서 성선하지 못하고 선도 수련으로 끝나는 존재들이다. 그런데 작중에서 성선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향후에 신선이 되는 존재들이라고 할 수 있고, 작가가 굳이 성선 사실을 언급하지 않고 함축하였다고 볼 수 있기도 하다. 32) 하지만 <<신선전>>에서 그들은 ‘도를 얻은 자일뿐’, ‘선인이 아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 1. 말 : 〈玉子〉

i) 이에 장상자를 스승으로 모셔 그가 가지고 있던 많은 술법을 전수받았다. 그리고 따로 자신만의 술법을 만들어 道書 백여 편을 지었는데, ii) 그 술법은 북두칠성 중의 네 개의 괴성 위주로 하며 오행의 이치를 정밀하게 하여 그 미묘한 도를 펼쳐 양성과 치병, 그리고 재앙을 소멸시키고 화환을 흩어 버리는 것이었다. …육지는 때로 기를 멈추고 숨을 쉬지 않았는데 이때는 일으켜도 일으킬 수 없고, 밀어도 움직이지 아니하였으며, 굽혀도 굽어지지 아니하고, 꺾도 꺾이지 아니하며 이렇게 수십 일을 하고 나서는 다시 옛날처럼 그대로 바뀌는 것이었다. 매번 제자들과 출행할 때면 각각 그들에게 진흙 환으로 말을 만들어 주면서 모두 눈을 감도록 하여 큰 말을 타게 하였다. 그들은 이를 타고 하루 천 리를 다녔다. … iii) 뒤에 그는 공동산으로 들어가 단약을 제조하면서 단약을 성취하자 대낮에 하늘로 올라가 버렸다. 33)

30) 모호한 사례를 제외하고, 僊俗, 容成公, 方回, 老子, 關令尹, 仇生, 范蠡, 幼子尹, 谿父, 祝融翁, 朱仲, 崔文子, 穰子 등이 있다.

31) “도사 부구공이 그를 데리고 송고산으로 올라갔다(道士浮丘公, 接以上嵩高山).”(《王子喬》, 유향저 김장환 옮김, 앞의 책, 132/134쪽 참조). “황완구는 휴산의 도사이다(黃阮丘者, 幽山道士也).”(《黃阮丘》, 같은 책, P. 240참조)

32) 별도의 자세한 논의가 필요하지만 유향은 아마도 <<열선전>>에서 도사들을 신선에 포함시킨 것이 아닌가 한다. 이런 관점은 班固의 신선 정의, “신선이란 천부의 성명을 그대로 보존하고 세속 밖의 가치를 고상한 방식으로 추구하는 존재이다. 에오라지 뜻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평정해 삶과 죽음의 영역을 같이 여기며 흉중에 위구와 불안이 없다.(神儻者, 所以保性命之眞, 而游求於其外者也. 聊以意平心, 同死生之域, 而無怵惕於胸中[班固, 《漢書》, 《藝文志》, 方技略, 景印문화사 영인본, P. 1780]와 부합하기도 한다.

33) “乃師長桑子, 受其衆術, 乃別造一家之法, 著道書百有餘篇, 其術以勝魁爲主, 而精於五行之演, 義其微妙以養性治病, 消災散禍, ……或時捫氣不息, 舉之不起, 推之不動, 屈之不曲, 伸之不直, 如此數十日, 乃

i)에서, 옥자가 도를 얻는 과정을, ii)에서, 옥자의 도술이 양성, 치병, 재앙소멸, 화환제거에 널리 걸쳐 있으며, ‘진흙 환’을 ‘말’로 만들어 영물로 활용하는 이적이 그 하나라는 것을, iii)에서, ii)의 사례들이 옥자가 신선이 되기 이전의 사행이란 사실을 알 수 있다. 또 옥자가 영물인 말을 창조한 것은 제자들과 출행할 때 수월하게 이동하면서 집단의 면모를 비범하게 내보이려는 의도 때문이라는 것도 알 수 있다. ii)에서 더불어 주목할 것은 제자들로 하여금 눈을 감도록 하는 경고성 주의이다. 이 당부는 영물인 말의 위엄과 신성성을 배려하는 장치이며, 동시에 세속의 보통 인간들이 영물을 활용하는데 요구되는 일종의 금기 조건이다. 이 작은 모티프는 최초의 신선 작품집인 <<열선전>>에서 영물이 인간에게의 시혜에 종사할 때 나타나는데 이를 포함하여 <옥자>에서 시도된 주변 사물을 주석에서 영물로 활용하는 양상은 <<열선전>>의 <服闋>가 시발이다.

북려는 어느 곳 사람인지 모른다. 항상 거 땅에 머물면서 해변에 있는 여러 사당을 왕래하였다. 어떤 세 선인이 북려에게 노란 오리와 흰 오리 수십 개를 메게 하고 눈을 감으라 했는데, 잠시 후 눈을 떠 봤더니 바로 방장산에 있었다. 방장산은 봉래산의 남쪽에 있다. 그 후 오랫동안 거 땅을 왕래하면서 방장산 위에 있는 진귀한 보석과 주옥을 가져다 팔았다. ... 수년 뒤 모습이다 시 젊어졌으며 머리카락도 지난날처럼 되었다.<sup>34)</sup>

신선들이 북려를 위하여 장기관 근처에 있었을 오이를 영물로 만들어 인간 북려로 하여금 선계에 갈 수 있게 한다. <옥자>의 사례는 <북려>의 사례를 기초로 한 변화라고 하겠다. <옥자>에서 제자들에게 말을 타기 전에 ‘눈을 감으라’ 했는데, <북려>에서도 그런 경고가 있으며, 양자에서 세속 인간을 위한 공간 이동으로 영물의 용도가 같고, 북려가 여러 사당을 왕래하는 것에서 그가 선도 추종 인물이며 이 때문에

復起如故。每與諸弟子行。各丸泥爲馬與之。皆令閉目須臾。皆乘大馬。乘之一日千里。... 後入峭崿山合丹。丹成。白日昇天也。” 임동석, 앞의 책, P. 145, P. 146. 이러한 옥자는 <<신선전>>도사 계보에서 주요 신선이다. 太陽子(태양자) 太陰女(태음녀)는 옥자의 제자들이다.

34) “服闋者。不知何所人也。向止菖。往來滌壺諸祠中。有三仙人。於祠中博賭瓜。翻開擔黃白瓜數十顆。教令睜目。及覺。乃在方丈山。在蓬萊山南。後往來高。取方丈山上珍寶珠玉寶之久矣。... 後數年。貌更壯好。鬢髮如往日時矣。” 유향 저 김강환 옮김, 앞의 책, P. 215, P. 216.

신선들의 배려를 받게 된다는 사실이 암시되는데, 이는 옥자의 제자들의 경우와 유사하고, 북려가 방장산으로 가 보석과 주옥을 가져온다는 것은 <옥자>에서 제자들의 출행이 명산으로 가서 단약의 재료를 채취하려는 것이라고 추정할 수도 있으며, 이도 서로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인용의 말미에서 볼 수 있듯 북려는 그 체형 이후 도사가 되는데, 이는 <옥자>에서는 그려지지 않았지만 추정이 가능한 제자들의 장래 도사 성취와 유사한 귀결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양자에서 더욱 주목하여야 할 것은 그 차이이다. 첫째, 영물을 만드는 주체가 <북려>에서는 신선이지만, <옥자>에서는 도사라는 사실이다. 둘째, <북려>에서는 오이 그 자체가 영물이 되지만, <옥자>에서는 ‘진흙 환’ 그 자체가 영물이 되지 않고, ‘말’로 변화하여 영물이 된다는 것이다. 영물 창조 과정에 변신모티프가 개입되어 있다.<sup>35)</sup> 그리고 영물 말의 원래 정체가 ‘진흙 환’이라는 것도 주목된다. 단약 강조에 수렴되는 현상이라 하겠다.

<옥자>의 이러한 변화 양상은 한 강력한 모티프가 되어 후대 작품에 그 영향이 지속되고 있다. 다음은 18세기 포송령의 <<聊齋志異>>의 <仙人島>에서 나타나는 그 답습 양상이다.

왕면은 더 이상 길이 보이지 않자 내심 걱정이 태산이었다. 하지만 방음이 흰 비단을 한 필 꺼내 남쪽으로 헛겜 내던지자 그것은 삼시간에 길게 뻗은 제방으로 변했다. ... 수레는 그 길을 따라 앞으로 달렸다. 순식간에 바다를 지났고 그들이 지나간 자리는 점차 말려들어 도로 비단이 되었다.<sup>36)</sup>

방운이 ‘비단’을 영물 ‘제방’으로 만들어, 인간 왕면의 귀환 공간이동을 수월하게 배려하고 있다. 도사가 지선으로 바뀐 것만 다르고 인간을 위한 시혜라는 용도와 효용

35) <<열선전>>의 <수양공>에 변신모티프가 등장하기도 한다. “수양공은 어느 날 떠날 수 있는가?” 사자의 질문이 끝나자 수양공은 칠상 위에서 흰 양으로 변했는데 그 옆구리에 “천자에게 하직을 고합니다.”라고 써어 있었다. (“脩羊公能何日發?” 語未訖。牀上化爲白羊。題其脇曰：“脩羊公謝天子。”) 유향 저 김강환 옮김, 앞의 책, P. 161, P. 163. 그러나 이는 영물 형상화와 관계없다. 하지만 <<신선전>> <옥자>의 변신모티프 발발의 한 계기가 되었다고 추정할 수는 있다.

36) “王心慮其無途。芳雲出素練一匹。望南拋去。化爲長堤。... 瞬息馳過。堤亦漸收。” 蒲松齡 저 김해경 옮김, <<요제지>>3(민음사, 2002), P. 320. 蒲松齡 著/朱其璣 主編, <<全本新注 聊齋志異>>上, 北京 人民大學出版社, 1989, P. 945.

이 동일하다. 즉 포송령은 <<신선전>>의 <옥자>나 이를 계승한 작품에서 이 모티프를 창작관습의 하나로 수용하고, 그 주체를 도사에서 다시 지선으로만 변용한 것이라고 하겠다. 같은 <仙人島>에서 보이는 도사 최진인의 활약도 거의 동일한 양상이다.

i) 말을 마치자 도사(최진인)는 손에 들었던 지팡이를 자신의 두 다리 사이에 끼우고 다른 하나는 왕면에게 주어 자기처럼 가랑이에 끼우게 했다. 도사는 또 그에게 눈을 감으라고 당부하더니 고향을 질렀다. “날아라” 왕면은 허벅지 사이의 지팡이가 닳 말들이 푸맷자루처럼 꺾어지는 것을 느꼈다. 지팡이는 허공을 가르며 날아오르더니 마치 숨이라도 내쉬는 것처럼 부풀었다 줄었다 하면서 하늘을 날아올랐다. … ii) 도사는 섬돌 아래에 놓인 길쭉한 돌을 가리키며 왕면에게 눈을 감고 걸터앉으라 한 뒤 또 절대로 눈을 떠서는 안 된다고 신신당부했다. 모든 준비가 완료되어 도사가 채찍으로 돌을 후려치자 돌은 하늘 위로 날아올랐다.<sup>37)</sup>

i)의 ‘지팡이’와 ii)의 ‘길쭉한 돌’은 진흙 환과 비단이 말과 제방으로 변신하는 것처럼 변신 과정을 거치는 않지만 도사 최진인의 필요와 의지로 영물이 되어 인간을 위한 비범한 공간이동에 역할하고 있다. 그리고 ‘허벅지 사이의 지팡이가 닳 말들이 푸맷자루처럼 꺾어지고’, ‘마치 숨이라도 내쉬는 것처럼 부풀었다 줄었다’는 창의적 부연 묘사도 선행 모티프를 답습하는 데서 가능했을 것이다. 그것들을 활용하는 인간들에게 <복려>와 <옥자>에서처럼 ‘눈을 감으라’는 경고 성격의 당부도 첨부되어 있다. 이 국면에 변신모티프가 없기에 ‘지팡이’와 ‘길쭉한 돌’이 <<열선전>> <복려>의 ‘오이’와 직접 관련된다고도 할 수 있겠으나, 최진인이 도사이고 그의 활약에 관련된 정황을 참조하면 <<신선전>> <옥자>에서 개발된 모티프의 한 후속이라고 하겠다. 이는 19세기 선정의 <<야우추등록>>의 한 작품인 <髮繡佛>에서도 나타난다.

37) “遂以杖次投間，卽以一頭授生。今如已狀。囑合眼，珂曰：“起”覺杖粗如五頭囊，凌空翁飛… 遂揮臂下長石，令閉目坐，堅聽無視，已，乃以席纏石，石飛起” 김예경 옮김, 같은 책, pp. 307-309. 浦松齡 著/朱其鑑 主編, 같은 책 中, p. 941, p. 942.

끈물녀는 다음날 큰 비단을 사와서 (장님) 평향에게 보여주고 손수 수틀에 얹어 주었다. 날마다 와서 지시하였고 평향은 오색실을 모아 처리하여 독창적인 양식을 창안해냈다. 완성을 고하는 날, 끈물녀가 와서 평향 대신 봉황의 눈을 그리자 두 봉황은 갑자기 활발하고 생기가 넘쳤으며 뜰에 날아 내려와 날개를 치는데 마치 기다리는 것 같았다. 곧 평향을 데리고 각각 봉황에 걸터앉아 구름을 타고 날아갔다.<sup>38)</sup>

인간 평향이 영물 봉황이 되는 봉황수를 만들며, 신선 끈물녀가 세속의 그 물건을 영물로 만들어 평향으로 하여금 공간을 초월하게 하고 있다. 이 양상에도 <옥자>의 영물 창조 모티프가 적용되어 있는 것이다. 작중 이야기의 서술성도 참작하면 <옥자>와의 관련성이 더욱 짙어지며, ‘눈을 감으라’는 경고가 없는 것은 평향이 장님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 2. 푸른 노새 : <尹軌>

진나라 영강 원년 십이월, 그가 낙양의 성 서쪽 어느 집에 이르러 하룻밤 재워 줄 것을 청하였지만 집주인은 마침 蜡祭를 지내야 한다는 이유로 재워 줄 수 없다고 하였다. 한참 후 윤계가 자신의 성명을 말하자 주인은 문을 열어 그를 맞이하여 그 앞에 주식을 차려주며 아울러 몇 곡의 곡식을 그가 타고 왔던 푸른 노새에게 먹이로 주었다. 그런데 윤계는 끝내 먹지 아니하였고, 노새 역시 그 곡식을 먹지 않은 것이었다. … 윤계는 뒤에 낙양의 태화산에 이르러 신선이 되어 승천하였다.<sup>39)</sup>

‘푸른 노새’는 세속의 평범한 승물이 아니다. ‘노새 역시 그 곡식을 먹지 않은 것이었다.’에서 보듯 보통 노새와는 달리 윤계처럼 辟穀을 하는 선도 관련 영물인 것이다. 노새의 이 행태는 결국 노새뿐만 아니라 윤계가 도사라는 사실을 입증한다. 작중 집

38) “(崑崙女)明日，果市巨綾來，視女手安于軌，每日來指點，彩絲綉理，花樣翻新。成之日，卽來替女點鳳目，雙鳳忽栩栩活，飛落中庭，鼓翼如翔：乃携女各跨一鳳，乘云飛去。” 宣鼎 著，宋欣 校點，《夜雨秋燈錄》，長春 時代文藝出版社，1987，上，P. 266.

39) “晋永康元年十二月，道洛陽城西，一家求宿，主人以祭蜡不欲令宿。良久，公度語其姓名，主人乃開門迎公度，与前設酒食，又以饗料穀與公度所乘青驢，公度竟不欲食，驢亦不食穀… 公度後到南陽太和山昇仙去矣.” 임동석, 앞의 책, P. 355, PP. 358-359.

주인과 독자는 윤케가 주식을 먹지 않는 것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었을 것이다. 미리 무엇을 먹었거나 몸이 불편해서거나 곽양 때문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노새마저 먹지 않는다면 사정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신선전>>에서 최초로 등장한 푸른 노새는 영물 자체로서도 개성이 있지만 이렇듯 윤케의 정체성을 환기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는 <<열선전>>에서 영물이 나타나 관련 인물이 신선임을 입증하는 역할<sup>40)</sup>을 차용한 사례이다. 중언되지만 <<신선전>> <尹軌>에서는 영물이 신선 아닌 도사의 정체성을 입증하고 있는데, 이러한 변화는 거듭 주목되어야 할 것이다. <윤케>의 푸른 노새는 <<신선전>>에서 최초로 등장하며, <<요계지이>>의 <辛十四娘>에서도 출현한다.<sup>41)</sup>

### 3. 푸른 노새 : <蘄子訓>

<<신선전>>의 <蘄子訓>에서 도사에 관련하여 영물 푸른 노새가 또 등장한다. <尹軌>의 푸른 노새와는 역할이 달라 따로 다룬다.

i) 많은 사람들이 나를 重瞳八采라 여겨 이렇게 만나고자 하는 것이다. 나 역시 별다른 도술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내 다시 그들에게 찾아갈 수 없

40) <<열선전>>영물 출현 23편 중 신선 입증 사례는 <南封子>등 13편에 보이며 다수였다. 참고로, 신선 능력 발휘는 <赤松子> 등 7편, 인간에게의 시혜는 <服闋>1편이다. (참고, <<열선전>>영물의 정체와 형상화 양상, <<중어중문학>>제37집, 한국중어중문학회, 2005. 12, PP. 201-203 참조).

41) “훗날 그의 노복이 화산에 갔다가 십사냥과 마주쳤다. 그녀는 푸른 노새를 타고 있었고, 같이 살던 시녀는 나귀를 탄 채 그녀를 따라 가는 중이었다. 십사냥이 물었다. “종서방님은 평안하신가?” 그녀는 또 이렇게 말한 다음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다. “주인에게 전해주게. 나는 벌써 신선의 명부에 이름이 올랐다고 말일세.” “后蒼頭至太華, 遇十四娘, 乘青驪, 婢子跨蹇以從, 問: “馬駒安否?” 且言: “致意主人, 我已名列仙籍矣.” 言訖, 不見”, 김혜경 옮김, 앞의 책 2, P. 235. 蒲松齡 著/朱其鑑 主編, 같은 책 上, P. 547. 여기서도 푸른 노새는 자신의 신선 성취를 알리는 십사냥의 말, “주인에게 전해주게. 나는 벌써 신선의 명부에 이름이 올랐다고 말일세.”를 신뢰하게 한다. 그녀는 들여우의 정령 출신이기도 하다. 십사냥은 도사가 아닌 신선이고 또 <<열선전>>의 성신 입증 사례와 일치하며 다른 정황이 없어 그 계열에 적격으로 소속시켜야 할 것이다. 하지만, 형상을 다시 고려한다면 <<신선전>> <윤케>의 ‘푸른 노새’와의 관련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하겠다.

다. 나는 떠나겠다. 그리하여 그가 막 문을 나서자 여러 귀인들이 오느라 그 모자와 수레 덮개가 길을 메우고 문에 물러들었다. 서생이 말하였다. “마침 동쪽 큰길에서 푸른 노새를 타고 가는 자가 바로 계자훈입니다.” 이에 각각 말을 몰아 그를 쫓았다. ii) 멀리 보면 그 노새는 천천히 가는 것 같았지만 각기 쫓아가는 말은 이를 따라잡지 못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한나절을 가도 항상 1리쯤의 거리를 유지하였는데 결국 미치지 못하고 말았다. 귀인들은 그제야 포기하고 되돌아왔다.<sup>42)</sup>

ii)에서 보듯, 푸른 노새의 행보는 평범하면서도 비범하다. 그 행보는 느렸지만 귀인들이 말을 부려 전속으로 뒤따라갔어도 그 누구도 1리 이내에 이르지 못하고 만다. 푸른 노새의 이러한 이적은 계자훈이 시현하는 도사로서의 능력 중 하나이다. 계자훈은 영물을 활용하여 자신과 귀인들 사이의 뛰어넘을 수 없는 경계를 보여주며, 두 가지 의미를 시사하고 있다. 삶의 영원한 실재를 동경하기는 하지만 관직에 매여 있으면서 자신을 다만 겹쳐진 눈동자에 여덟 색채가 어린 두 눈을 가진 도인쯤으로 여기며 다시 만나고자 하는 세속인들의 호기심에 일침을 가하는 동시에, 한편 그들로 하여금 선도에 입삼시키려 한다는 것이다. 조롱과 유도, 따라 붙지 못하게 하여야 따라 온다는 아이러니가 착색되어 있다. 또 ‘별다른 도술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면서도 이런 별 다른 도술을 내보이는 것도 아니려니 하며, 이런 아이러니들은 푸른 노새 때문에 가능하였다. <<열선전>>을 전후하여 영물은 세속의 인간이 초 세속에 이르러야 할 때 상구하고 회귀하는 존재였는데 여기서는 세속 내부에서도 그 경계를 구획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sup>43)</sup> <윤케>의 푸른 노새와 <계자훈>의 푸른 노새의 운행방식은 ‘보행’인데, 이 방식은 <<열선전>>의 <갈유>에서 보였다.<sup>44)</sup>

42) “諸人謂我當有重瞳八采, 故欲見我, 我亦無所道, 我不復往便爾, 去矣.” 適出門, 諸貴人冠蓋塞道, 到門. 書生言: “<适去東陌上乘青驪者是也>於是各走馬逐之, 望見其驪徐徐而行, 各走馬逐之不及, 如此行半日, 而常相去一里許, 不可及也, 乃各罷還.” 임동석, 앞의 책, p. 281, p. 283.

43) <<요계지이>>의 <십사냥>에서도 이러한 여운이 내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44) “어느 날 그는 그 양을 타고 서쪽으로 들어갔는데, 촉 땅의 왕후 귀인들이 그를 쫓아 수산으로 올라갔다. (一旦騎羊而入西蜀, 蜀中侯貴人追之上緱山), 유향 지음 김장환 옮김, 앞의 책, 1996, p. 114.

#### 4. 부적·단서 : 〈李意期〉

i) 그는 먼 길을 급히 다녀와야 할 경우가 있을 때면 그에게 부적 하나를 주었고, 아울러 단서를 그 사람 양쪽 발에 달아 주었다. 그러면 그는 천 리를 하루가 다 가기 전에 다녀올 수 있었다. ii) 또 어떤 사람이 사망의 郡國들의 궁궐이나 시정의 모습을 말하는 자가 있어 앉아 들던 사람들이 혹 이를 직접 보지 못한 자가 있어 거듭 묻게 되면 의기는 즉시 흠을 모아 군국의 형상을 만들어 보였는데 모두가 사실과 같았으나 그 크기가 한촌 정도로 작았을 뿐이었다. ... 뒤에 의기는 남야산으로 들어가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다.<sup>45)</sup>

앞 장에서 인용하였던 〈이의기〉문면의 관련 문맥이다. 符籙과 丹書는 어떤 영물을 대체한 특별한 영물이다. i)에서 보듯 도사 이의기는 세속의 보통 인간이 시급히 먼 길을 다녀와야 하면 이 영물들을 제공한다. 도사가 보통 인간에게 시혜하는 사례이다. ii)에서 보이는 조형물 역시 한 지역에 매여 사는 서민들에게 베푸는 도술의 하나이며 독자성이 있지만, i)의 초월성 공간 이동 능력을 보장하는 일화이며, 부적과 단서의 효용을 강조한다.〈야우추등록〉의 〈王大肉〉에서도 부적이 영물로 등장하고 있다.

i) 3년이 지나 진 방백은 관할 구역이 월로 바뀌게 되자 장진인과 작별을 하게 되었다. 장진인은 부적 하나를 방백에게 주며 “이것을 악귀를 쫓고 집안을 안전하게 하는 데 쓰십시오.”라고 하였다. 월로 가지고 갔으나 영험이 보이지 않았다. ... ii) 하루는 진 방백이 부적을 가지고 놀다가 향불이 옮겨 붙었다. 부적에서 불꽃이 치솟아 올라 끌 수가 없었다. 움직이는 불꽃을 따라 몸을 돌려 보니 작은 채봉이 천천히 공중으로 날아 서북쪽으로 가버렸다. 다음날 장진인이 편지를 보내왔다. “지난 번 부적은 산으로 돌아가 임무를 마치게 하려

45) “人有欲遠行速至者，意期以符與之，并以丹書其人兩足，則千里皆不盡日而還。人有說四方郡國宮觀市井者，座中或未見，重問說者，意期即爲撮土作之，所作郡國形象皆是，但盈寸耳，須臾消滅。”〈李意期〉，입동석, 앞의 책, p. 385, p. 387.

한 것인데 공은 어찌 서들렀는가”라고 하였다.<sup>46)</sup>

i)에서 부적은 악귀를 쫓는 단순한 부적처럼 보이지만, ii)에서 알 수 있듯, 부적은 영물(채봉)이다. 부적은 진방백을 선도에 입찰시키려는 의도에서 출현하였으나 실패한다. 척륵술에나 관심을 가지며 도교의 실재를 끝내 불신하는 진 방백에게 도사 장진인은 도교 입찰을 권유하였으나 거부당하였고 마지막으로 부적(채봉)을 주어 그의 성선 축진을 기도하였었다. 〈신선전〉〈이의기〉와 귀결 정황이 다르며, 그 지속과 변화가 동시에 나타난 사례라고 할 것이다. 부적이 영물로 활용되고 있는 이런 양상은 이미 〈신선전〉시대에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여 후대 작품에서 영물로 등장하는 부적 사례를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 5. 푸른 소 : 〈封君達〉

i) (봉군달은) 50여 년 황정을 복용하였고, 다시 오서산에 들어가 수운을 연단하여 복용하였다. 백여 세에 고향을 다녀갔으며 그때 30여 세쯤으로 보였다 한다. ii) 항상 푸른 소를 타고 다녔으며 사람이 죽어간다는 소식을 들으면 곧 찾아가 약을 주어 이를 치료해 주었으며 그의 손이 닿으면 모두가 나왔다. ... 그 뒤 2백여 년이 지나 그는 현구산으로 들어가 신선이 되어 사라졌다.<sup>47)</sup>

여기서 도사 봉군달의 ‘푸른 소’는 세속의 한 승물로 보이기도 하지만, i)에서 보듯, 봉군달이 황정과 단약을 복용하였고 백여 세인데도 30여 세로 보이는 풍모이기 에 영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푸른 소 역시 봉군달의 도사 성취를 입증한다고 하겠

46) “越三年，方伯移官越中，與真人話別，以一符送公曰：“此可鎮宅用也。”携至越，亦不見靈爽。”一日公戲以香頭燃之，符焰遽騰，不能扑滅，再轉身，則見一小彩鳳冉冉飛空中，向西北去，翌果真人郵示一函云：“前符使已回山銷差矣，公何急急也。”，宣鼎 著，宋欣 校點， 앞의 책 하, 〈王大肉〉, p. 16.  
47) “服嶺精五十餘年，又入烏鼠山，服鍊水銀，百餘歲，往來鄉里，視之年如三十許人，尚騎青牛，聞入有疾病時死者，便過與藥治之，應手皆愈…後二百餘年，入支丘山仙去也。”， 입동석, 앞의 책, 〈封君達〉, pp. 396-397, p. 397.

다. 푸른 소는 <<열선전>> <老子>에서 노자가 탄 일반 승물로 등장한 적이 있다.

나중에 주나라의 덕이 쇠하자 푸른 소가 끄는 수레를 타고 떠나 대진국으로 들어가는 길에 서판을 지나게 되었는데...<sup>48)</sup>

봉군달의 푸른 소와 노자의 푸른 소는 영물과 세속 승물로 차원이 다르지만, 양자는 선도의 맥락에서 연관된다고 하겠다.<sup>49)</sup> <노자>에서 등장한 일반 승물이 <<신선전>> <봉군달>에서 영물로 격상되어 활용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산해경>>에 등장한 異形 조류인 精衛 <<야우추등록>> <迦陵醜>에서 영물로서의 정체성을 부여받은 사례와 유사하다.<sup>50)</sup>

### 6. 대나무지팡이 : 〈象〉

i) 선주(손권)가 다시 물었다. “축 땅으로 보낸 사신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까. 그가 생각을 가지고 오면 이를 회와 함께 먹으면 지극한 맛일 텐데요. 지금 아직 생각을 가지고 오지 못하고 있으니 어찌하면 생각을 구할 수 있을까요?” 개상이 말하였다.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원컨대 심부를 시킬 사람 하나를 정해주십시오.” ii) 그리고 개상이 부적을 하나 써서 그의 대나무 지팡이에 달아매어 주고는 그로 하여금 지팡이를 타고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그 지팡이가 머무는 곳에서 곧 생각을 살 것이며 생각을 산 다음에는 똑같이 하고 눈을 감도록 일러 주었다. 그가 시키는 대로 지팡이를 탔더니 순식간에 성도에 이르러 있는 것이었다. 이에 생각을 사게 되었다. ... 선주는 그의 관을 열어보게 하였다. 그런데 그 속에는 단지 하나의 奏版 부적만이 있을 뿐이었다.<sup>51)</sup>

48) “後周德衰，乃乘青牛車去，入大秦，過西關...” (老子), 유향 지음 김경환 옮김, 앞의 책, p. 73, p. 75.

49) 세삼스럽지만 노자는 <<도덕경>>과 아울러 선도와 도교에서 태상노군으로 추송되는 주요 인물이다. 정제서는 후세 설화에서의 노자와 관련된 푸른 소 발상은 서양의 재생 유니콘과 부합하는 <<산해경>>의 승황(등 위에 일각 뿔이 있는 여우 외양)에서 비롯된다고 추정한다. (정제서, <<불사의 신화와 사상>>, 민음사, 2005, PP. 78-79 참조)

50) 줄고, (야우추등록 영물의 정체와 형상화 양상) <<중어중문학>> 제41집, 한국중어중문학회 2007, 12, P. 411 참조.

51) “先主問曰：「蜀使不來，得靈作論至美，此間靈不及也，何由得乎。象曰：「易得耳。…」象書一符，以著竹杖中，令其人閉目騎杖。杖止便買靈，買靈畢，冥閉目。此人如言，騎杖須臾已到成都，不知

개상이 시해선이 되기 전에 벌인 한 활약으로 영물 ‘대나무 지팡이’가 등장하고 있다. 개상은 자신을 존중하는 손권을 위해 심부름꾼으로 하여금 그것을 타고 머나먼 축 땅에 가 생각을 사오게 한다. 영물 대나무 지팡이의 운행 용도는 도사가 인간에게 베푸는 시해이며, 손권을 선도에 입문시키려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 i)에서 대나무 지팡이가 출현하는 관련 사정을 알 수 있고, ii)에서 그 신이한 정경을 감지할 수 있는데, 여기서도 심부름꾼으로 하여금 ‘눈을 감도록’ 경고한다. 재연되지만 이는 보통 인간의 영물 탑승에 따르는 일종의 금기이다. 따라서 여기서 등장한 부적은 영물이 아니고 일종의 액막이이다. 만약 개상이 직접 나섰다면 그럴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영물이 도사의 도술 권역으로 편입되기는 하였어도 여전히 영물의 신성성이 배려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국면이다.

대나무 지팡이는 <<열선전>>에서 보이지 않았다. <<신선전>> 「개상」에서 최초로 출현한 대나무 지팡이는 앞에서 살펴보았듯 <<요제지이>>의 <仙人島>에서도 출현하였는데, <<야우추등록>>의 <離魂婦>에서도 목격할 수 있다.

도사(맹전진)는 이윽고 하늘을 한참 바라보고 머리를 숙이고 한참 있다가 갑자기 이황당을 침대에 넘어뜨렸다가 또 끌어당겨 일으키더니 표표히 답장을 넘어 나가며 함께 대나무 지팡이에 앉아 눈을 감으라고 했다. 꿩가로 바람 소리가 들리고 잠깐 사이 천리 길이었다. 지팡이는 하남 자양 동향산 속에 떨어졌다. 선찰이 우뚝 솟아 있는데 바로 砧發道觀이었다.<sup>52)</sup>

여기서 대나무 지팡이는 호인형 속물 이황당을 정화시키기 위해 동향산 도관으로 데려가는 사역에 동원되고 있다. 세속 인간에게의 시해이며, <<신선전>>의 <개상>에서 개상이 손권에게 의도한 것처럼 이황당을 선도에 입문시키려는 맹전진의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 맹전진이 신선이라는 차이가 있지만<sup>53)</sup> 이상의 사정에서 <이혼

何處，問人，言是蜀中也，乃買靈……發視其符中，唯一奏版符耳。”, 임동석, 앞의 책, PP. 364-366, P. 367, P. 368.

52) “道士旋仰天良久，俯首良久，驚仆生于榻，又掣之起，飄飄逾牆出，共坐竹杖上，囑閉目。耳際風鳴，頃刻千里，杖旋落，則墜河南紫陽東鄉山中，仙剎隆起，爲砧發道觀。”, 宣鼎 著，朱欣 校點，같은 책, P. 302.

53) 인용에서 보듯, 진지 서술자가 맹전진을 도사라고 호칭하고 있는데, 이에 앞선 도입부에서 맹전진이 시해선이 된 정황이 있고 그 후일 다시 만났을 때 다음처럼 자신의 정체를, “맹전진

서>의 대나무 지팡이는 <<신선전>> <개상>의 대나무 지팡이를 답습한 그 한 再來라고 할 것이다. 한편 <개상>의 대나무 지팡이를 매개로 하여 <<열선전>> <복려>의 '오이'와도 희미하나마 그 혈연이 연결되어 있다고 하겠다. 여기서도 '눈을 감으랴'는 특유의 경고성 주의가 있고, 이 작은 모티프는 유구한 관련 맥락을 측면에서 부각시키고 있다.

#### IV. 결론

문학 작품에는 작가의 이념과 시대 배경이 반영되고 개성과 창안이 안출되기 마련이지만, 전대 문학 작품에서 계승한 모티프나 관습이 준용되거나 변용되어 있기도 하다. 전자가 두드러지기도 하지만 후자가 두드러지기도 하여, 서사의 개성을 현상으로 보면서 작품들이 내적으로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관되어 있다고 하거나, 심지어는 작가를 배제하고 작품이 작품을 생성한다는 관점이 유행하기도 하였다. 이 관점에 동의하기를 주저하지만, 중국문학사에 장구하게 지속되는 신선 관련 작품들에서 영물은 그 전체 질서 구축에서 주요한 기초에 해당한다는 것은 거듭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영물은 <<열선전>>에서 그 정체성이 확립되면서 후대 작품들의 창작에서 습용되는 모티프가 되었는데, <<신선전>>의 일부 영물을 검토한 결과, <<열선전>>의 영물을 계승하는 한편 <<열선전>>영물에서는 없던 주목할 만한 변화들이 시도되어 있었고, 이 변화가 후대 작품들에 전승되고 있었다.

먼저 <<신선전>>에서 구현된 지속과 변화를, 변화 위주로 정리하면, 첫째, 영물이 <<열선전>>에서와는 달리 신선이 천선, 지선, 시해선으로 등차 구분되는 가운데, 지선에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다. 영물의 위상 저하라고 할 이러한 제한은 무엇보다도 단약 강조에서 기인한다. 상약인 단약을 복용하면 천선이 되고, 그 반만 복용하거나

이 ... 조그마하게 "나는 시해 우화한 것이라 지난번에 진짜 죽은 것은 아니었다네. 삼가 누설하지 말게나(“孟…小語云:“仆乃尸解羽化, 前非眞死, 慎勿寫于人.”) (宣鼎 著, 宋欣 校點, 앞의 책상, p. 302)라고 밝힌 바 있다.

하약인 운모나 옹황을 복용하면 지선이 된다.

<<열선전>>과 달리 <<신선전>>』의 이러한 단약을 우선하는 배경은 위진 시대 관방도교의 단약 중시 경향이며, 그 부가의 動因은 <<신선전>>을 편찬한 갈홍의 신념이다. <<산해경>> 시대에 뿌리를 둔 단약은 후한의 위백양이 연단술을 정립한 이래 그 제조가 활성화되었으며 불로장생을 성취하는 비약으로 도교 지식인들의 주목을 받았다. 단약 제조는 성선의 길이었고, 갈홍의 일생은 단약 제조와 분리되지 않는데, 그는 연단술의 맥락을 정리하여 <<抱朴子>>에 수록하기도 하였다.

영물의 위상 저하 다음으로 주목된 변화는 단서와 부적으로 영물이 대체되고 신선의 외양 묘사가 부각되면서 영물이 생략되기도 하는 현상이다. 이러한 현상도 당시 도교의 동향과 관계된다. 단서와 부적이 신성시되면서 도교를 표상하는 提喻에 해당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도교의 기초가 마련되고 신도들이 형성되면서 단서와 부적이 신선 소망과 세속 욕구에 더 구체적으로 부응하였던 것이다. 신선의 외양 묘사도 당대 독자들에 요구에 따라 각종 묘사가 진전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간주되며, 이에 관련하여 영물이 생략된 현상에는 영물이 신선의 정체성을 입증하기도 한다는 인식이 함축되어 있다.

위상 저하와 대체 생략 현상들은 <<열선전>>에서 차별이 없었던 자력비승과 타력비승에도 등차를 유발시켰고, 영물의 출현과 활동에도 일정한 제한을 초래하였다.

하지만 영물은 차원을 달리하여 도사들의 영역에서 출현하고 활동을 거듭한다. 이런 양상은 <<신선전>>시대와 대조되는 영물의 정체성 변화로 크게 주목되어야 할 것이다. 더욱이 <<신선전>>에서는 <<열선전>>과 달리 도사는 신선과 뚜렷이 구분되고 있었다. 도사는 신선을 지향하는 그 未成의 존재이다. <<신선전>>에서도 <<열선전>>에서처럼 영물 활용이 신선의 권능으로 부각되고 있으면서도 도사들의 도술의 일환으로 영물이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일관성이 결여되었다고도 할 이런 양상은 <<신선전>> 시대 도교의 강렬한 세속지향과 인간 욕망의 수용경향이 빚은 변화라고 하겠다. <<신선전>>의 다수 작품들에서 <<열선전>>과는 달리 세속의 욕망과 영화가 인지상정으로 긍정되며 추구되고 있었고, 세속의 구체도 명분이 되면서 천선보다는 지상에 머무는 지선을 선호하기도 하였다. 나아가 성선 이전 도사들의

세속에서의 비상한 활동담이 확대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영물들이 등장하며 도사의 위상을 격상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런 양상에서 영물의 위상 저하가 더욱 뚜렷해지기도 하지만, 영물은 산생의 기원이 인간의 공간초월 염원과 욕망에 소재하고 있기에 이 변화는 자연스러운 演變이라고 할 수 있다. 후대 작품의 도사 활동에서 영물이 등장하는 사례는 <<신선전>>을 모본으로 하며 이를 매개로 <<열선전>>의 영물과 접촉되고 있었다.

<<신선전>> <玉子>의 영물 말은 도사의 활동담에서 변신 모티프를 수반하여 창조된 최초의 영물이었으며, <<요재지이>> <仙人島>의 영물인 제방의 원형이었고, 같은 작품의 지팡이와 길쭉한 돌, 그리고 <<야우추등록>> <髮繡佛>의 봉황의 생성 방식에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 혹 영물 창조와 활용의 주체가 도사가 아닌 신선으로 설정되어 있기도 하였으나 이는 그 나름의 변용이었으며 그 틀과 맥락에 <옥자>를 계승하는 성격이 완연하였다. <尹軌>의 푸른 노새는 윤계가 도사임을 입증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蘄子訓>의 푸른 노새는 도사 계자훈의 능력 발휘 중 하나였으며, <<요재지이>>의 <辛十四娘>에서도 출현하고 있다. <李意期>의 단서와 부적은 세속 인간을 위한 시혜의 정황에서 출현하였으며, 부적은 <<야우추등록>>의 <王大肉>에서도 등장하며, <封君達>의 푸른 소는 <<요재지이>>와 <<야우추등록>>에서 등장하고 있지 않지만 후대의 다른 작품에서 등장할 개연성이 충분하다. <介象>의 대나무 지팡이는 도사 능력의 일환으로 출현하였는데 <<요재지이>>의 <仙人島>와 <<야우추등록>>의 <離魂婿>에서도 등장하여 작중 인물의 선도 입찰을 유도하고 있었다.

<<신선전>> 영물의 면모와 의의는 18세기 <<요재지이>>와 19세기 <<야우추등록>>에서뿐만 아니라 위진 이후 후대 신선 관련 작품에 등장하는 영물의 성격과 형상화 고찰에서도 주요한 참조가 될 것이다.

《參考文獻》

임동석, <<신선전>>, 서울·고즈원, 2006.

王 明, <<抱朴子內篇校釋>>, 北京·中華書局, 2007.

<<晉書>>, 臺北·鼎文書局

班 固, <<漢書>>, <藝文志>, 方技略, 경인문화사 영인본

정재서, <<山海經>>, 서울 민음사, 1985.

——, <<山海經>> 神話와 神仙說話>, <<中國語文學>>제12집, 한국중어중문학회, 1986.

——, <<불사의 신화와 사상>>, 서울·민음사, 2005.

유향 지음/김장환 옮김, <<열선전>>, 서울·예문서원, 1996.

蒲松齡저/朱其鏗 주편, <<聊齋志異>>上中下, 北京·人民大學出版社, 1989.

김혜경 옮김, <<요재지이>>, 서울·민음사, 2002.

宣鼎 著/宋欣 校点, <<夜雨秋燈錄>>, 長春·時代文藝出版社, 1987.

趙 益, <<六朝南方神仙道教與文學>>, 上海·上海古籍出版社, 2006.

徐儀明, 冷天吉 著, <<人仙之間>> - <<抱朴子>> 與中國文化, 開封 河南大學出版社, 1998.

吳九成, <<聊齋美學>>, 廣東·廣東高等教育出版社, 1998.

吳秀華, <<明末清初小說戲曲中的女性形象研究>>, 南京 江蘇古籍出版社, 2002.

李劍國, <<唐前志怪小說史>>, 天津·南開大學校 出版部, 1984.

侯忠義, <<中國歷代小說辭典>>, 雲南人民出版社, 1986.

吳光正, <<中國古代小說的原型與母題>>, 北京·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02.

孫 遜, <<中國古代小說與宗教>>, 上海·復旦大學出版社, 2000.

南懷瑾, <<禪宗與道家>>, 上海·復旦大學出版社, 1992.

張志堅, <<道教神仙與內丹學>>, 北京·宗教文化出版社, 2003.

文史知識編輯部 編, <<道教與傳統文化>>, 北京·中華書局, 1992.

林 辰, <<神怪小說史>>, 杭州·浙江古籍出版社, 1998.

李豐楙, <<六朝隋唐仙道類小說研究>>, 臺北·臺灣學生書局, 1986.

葛兆光, 지음/沈揆昊, <<道教與中國文化>>, 서울·東文選, 1993.

진인초, <神仙傳研究>, <<연세논총>>, 1985.

한경아, <<神仙傳>>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논문, 1998.

윤 월, <<갈홍의 신선사상과 양생법>>, 서울·엠-에드, 2006.

졸 고, <<열선전>> 영물의 정체와 형상화 양상>, <<중어중문학>> 제37집,

- 한국중어중문학회 2005. 12
- , < <<열선전>> 영물의 내원과 그 지속과 변화 양상>, <<중어중문학>> 제39집, 한국중어중문학회, 2006. 01.
- , < <<아우추등록>> 영물의 정체와 형상화 양상>, <<중어중문학>> 제41집, 한국중어중문학회, 2007. 12.

《中文提要》

一系列歷代神仙作品中，靈物不斷地出現。本文是嘗試研究靈物的真面貌和形象的系列之一，擬分析探討《神仙傳》中的靈物。一是《神仙傳》中靈物的面貌和作品中的其作用，對比探討與《列仙傳》不同的變化。二是《神仙傳》中最初刻畫的靈物在《聊齋志異》和《夜雨秋燈錄》中如何體現，要考查其繼往開來的面貌。

文學作品反映作家的思想和時代背景。但也從前代作品中繼承母題和作用而沿用。從《神仙傳》中的一些靈物來看，可知《神仙傳》繼承《列仙傳》的靈物，但又不同於《列仙傳》，引人注目。其變化影響到後來的作品。

第一，《神仙傳》中把神仙分為天仙、地仙、尸解仙，三者層次上有差異。《神仙傳》中的靈物與地仙有密切的關係，這樣的特点不見於《列仙傳》。這可以說靈物的地位因此降一等。葛洪為什麼這樣描寫靈物？因為一是他認為人變為神仙時，最主要的方法是服丹，二是他肯定人在人間世界希望實現世俗的欲望。

第二，《神仙傳》中把道士和神仙進行了區分，一些靈物道士活動時出現，這個母題成為後來的有關神仙故事的原形。《神仙傳》中道士移動時騎或坐靈物，而證明自己的神仙性。結果，道士升格，靈物降格。

第三，《神仙傳》<玉子>中的靈物馬是運用變身母題而創造出來的，影響到《聊齋志異》<仙人島>中的靈物堤、杖、長石和《夜雨秋燈錄》<髮綉佛>中的靈物(綉鳳)的機能特点。《神仙傳》<尹軌>和<薊子訓>中的青驪在《聊齋志異》<辛十四娘>中也出現，與《神仙傳》的青驪執行着相似的任務。<李意期>中的符籍可見於《夜雨秋燈錄》，<封君達>中的青牛不見於《聊齋志異》和《夜雨秋燈錄》，但可能出現於其他作品中。<介象>中的竹杖見於《聊齋志異》<仙人島>和《夜雨秋燈錄》<離魂婦>，發揮其機能。

《神仙傳》中靈物繼往開來的位相和面貌，成為研究從魏晉到明清的有關神仙的靈物時主要

的參考資料。

**關鍵詞：** 靈物，地仙，道士，玉子，尹軌，薊子訓，李意期，介象，封君達

이 논문은 2010년 11월 19일에 접수되어 2010년 12월 16일에 심사가 완료되고 2010년 12월 21일 편집회의에서 게재가 확정되었음.